

---

# I

##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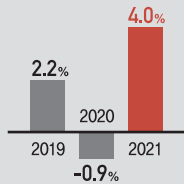
1. 실물경제	3
2. 금융·외환시장	16

# 2021 한국경제

## 성장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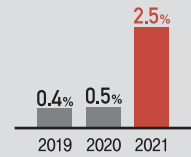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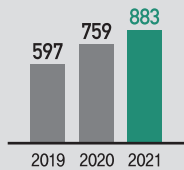
2.5%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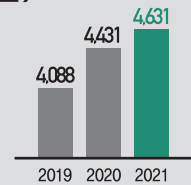
## 경상수지

883억 달러(흑자)



## 외환보유액(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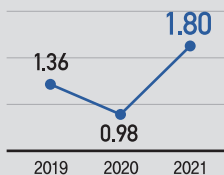
4,631억 달러



## 금리(연말 기준)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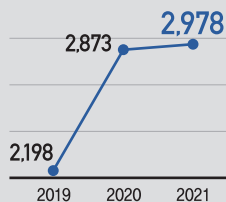
국고채(3년)



## 주가(연말 기준)

2,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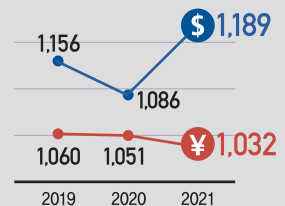
KOSPI



## 환율(연말 기준)

\$ 1,189 원/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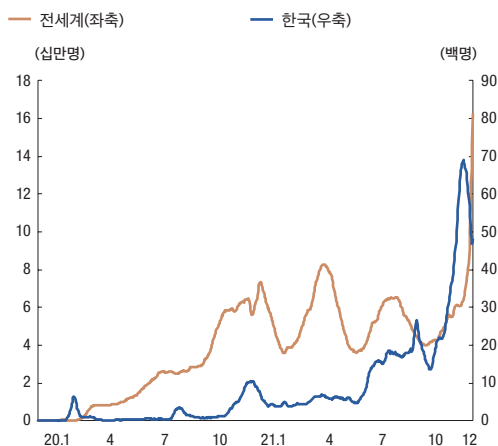
¥ 1,032 원/100엔



## 1. 실물경제<sup>1)</sup>

2021년 세계경제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각국의 방역조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경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재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은 백신 보급을 확대하고 완화된 방역체제로 전환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말 들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대두되고 확진자 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국내에서도 7월 중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거리두기 시행과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방역조치를 완화하였다. 연말경에는 델타 변이 재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확진자 수가 큰 폭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유보하고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여타 변이에 비해 낮아 경제회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림 1 -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sup>1)</sup>



주: 1)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Worldometer

### 가. 세계경제

#### 세계경제 회복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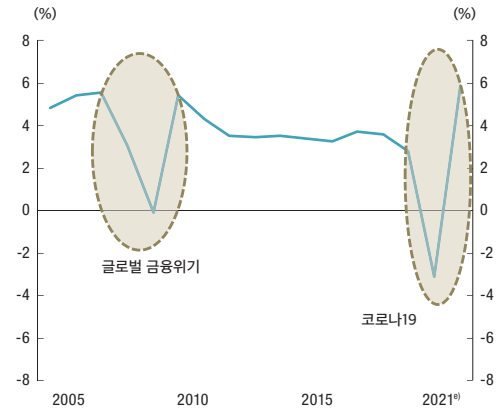
2021년 중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회복흐름이 지속되었다. 세계 GDP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보다 빠르게 반등한 5%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sup>2)3)</sup>. 이는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된 데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고 상품 교역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 2021년 중 경제 동향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의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3월호, 2021년 6월호, 2021년 9월호, 2021년 12월호, 2022년 3월호.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세계경제는 IMF 통계를 기준으로 5.4% 성장하였으며,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IMF 5.9%, World Bank 5.5%, OECD 5.6%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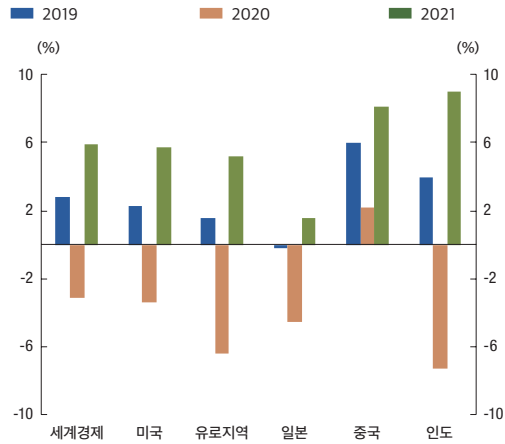
3) 세계경제 성장률(실질, IMF기준): 2019년 2.8% → 2020년 -3.1% → 2021년 5.9%\*

그림 1 - 2.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IMF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와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성장흐름을 이어갔다. 유로지역은 연초 감염병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위축되었다가 백신접종 확대와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반등하였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긴급사태 선포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반복되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회복흐름이 미약하였다. 신흥국 가운데 중국은 상반기 중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형다사태<sup>4)</sup>로 인한 부동산경기 위축, 전력난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여타 신흥국의 경우 인도는 하반기 이후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ASEAN 국가들의 경우 상반기 중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회복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1 - 3.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sup>1)</sup>

주: 1) 세계경제, 유로지역, 일본 및 인도의 2021년 성장률은 IMF(2022년 1월) 추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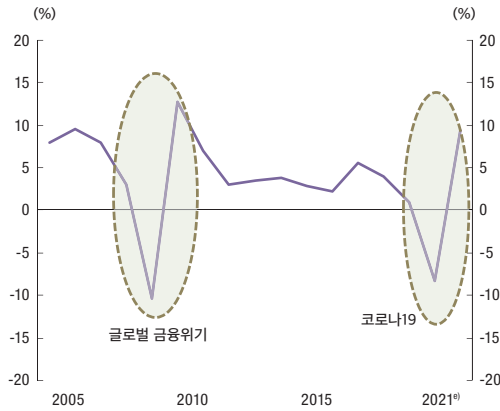
자료: IMF, 각국 통계청

### 세계교역 회복세 지속

2021년 세계교역도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sup>5)</sup>. 상품교역은 상반기 중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개선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서비스교역은 2020년 중 출입국 통제 강화로 크게 위축되었던 여행서비스가 입국제한 완화로 회복되고, 운송서비스도 상품교역 증가로 늘어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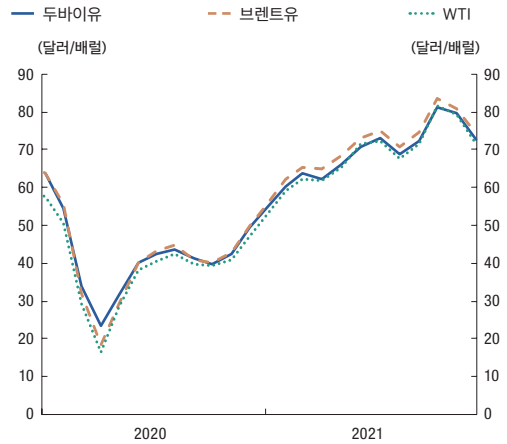
4) 중국 부동산개발기업 형다그룹은 2021년 9~12월 중 지급예정이었던 달러채 이자와 위안화채 이자를 여러 차례 미지급하였으며, 2021년 10월 4일 홍콩증시에서 형다그룹의 주식거래가 중지되었다.

5) 세계교역 신장률(IMF기준): 2019년 0.9% → 2020년 -8.2% → 2021년 9.3%<sup>e)</sup>

그림 1 - 4. 세계교역 신장률 추이<sup>1)</sup>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기준  
자료: IMF

그림 1 - 5. 국제유가 (월평균)



자료: Bloomberg, Reuters

## 국제유가 오름세 지속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감염병 재확산으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sup>6)</sup>. 상반기에는 백신보급 확대, 주요국 대규모 재정지출 등에 힘입어 원유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데다 OPEC+의 감산공조가 지속<sup>7)</sup>되면서 상승흐름이 이어졌다. 8월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원유수요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60달러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상승하면서 11월 중에는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인 80달러 중반 수준을 기록하였다. 12월 들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로 유가가 다시 60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주요 산유국의 증산이 더디게 진행<sup>8)</sup>되면서 연말에는 70달러 중후반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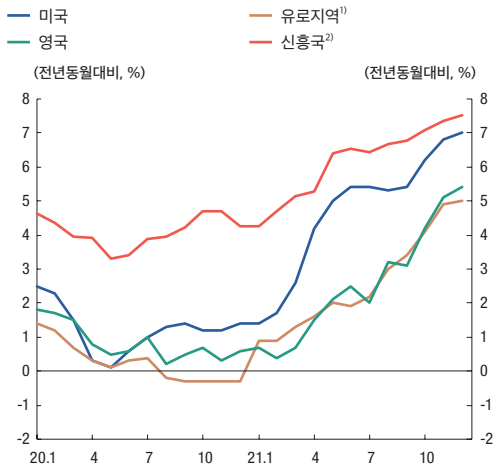
2021년 중 미국, 유로지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에서도 식료품가격 상승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6) 연평균으로 2020년 배럴당 42.2달러에서 2021년 배럴당 69.0달러로 상승하였다.

7) OPEC+의 감산공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와 별개로 2~4월 중 일평균 100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실시하였다.

8) 친환경 기조 확대 등으로 미 세일업체의 신규투자가 지연되었으며, OPEC+도 8월 이후 일평균 40만 배럴씩 증산하였으나 수요 회복세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림 1 - 6.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1) HICP 기준

2)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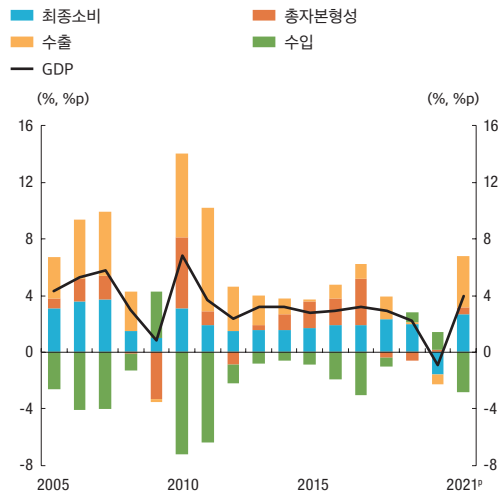
자료: 각국 통계청

## 나. 국내경제

### (1) 경제성장

#### 국내경제 빠르게 회복

2021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 경제활동 재개 및 확장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4.0% 증가하였다<sup>9)</sup>.

그림 1 - 7.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실질)<sup>1)</sup>

주: 1) 2020년, 2021년은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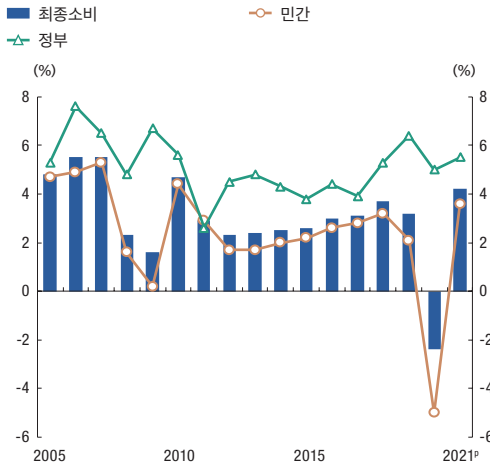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최종소비지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모두 늘면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sup>10)</sup>.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중 크게 감소(-5.0%)하였던 민간소비는 3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지원정책과 백신접종 확대 및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9) GDP 성장률(실질): 2019년 2.2% → 2020년 -0.9% → 2021년 4.0%

10)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실질): 2019년 3.2% → 2020년 -2.4% → 2021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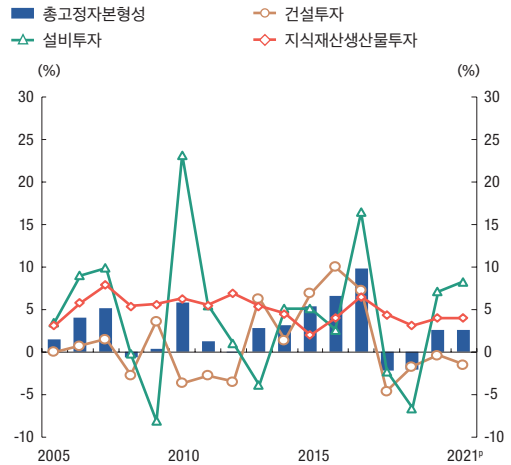
그림 1-8. 소비 동향 (실질)



자료: 한국은행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건설투자가 줄었으나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sup>11)</sup>.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비대면 IT수요 확대에 힘입어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다. 다만 운송장비 투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로 자동차 투자가 제약되면서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차질 등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4.0% 증가하였다.

그림 1-9. 고정투자 동향 (실질)



자료: 한국은행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재화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다<sup>12)</sup>. 재화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대부분의 품목과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출도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서비스 수출 호조 등으로 확대되었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감염병 우려로 여행 서비스가 부진하였으나 국내의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재화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sup>13)</sup>.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

산업별 생산(GDP 기준)을 보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이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흐름<sup>14)</sup>을 보인 반면, 건설업은 2018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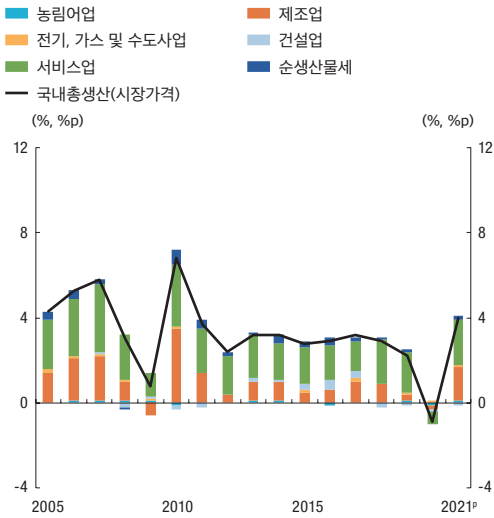
11)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실질): 2019년 -2.1% → 2020년 2.6% → 2021년 2.6%

12)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실질): 2019년 0.2% → 2020년 -1.8% → 2021년 9.9%

13)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증가율(실질): 2019년 -1.9% → 2020년 -3.3% → 2021년 8.5%

14) 12월에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역정책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림 1 - 10.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실질)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13.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6.6%)을 기록하였다. IT 부문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비IT부문도 국내외 수요 회복,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표 1 - 1.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2008	2009	2010	2019	2020 <sup>p</sup>	2021 <sup>p</sup>
제조업	3.5	-2.3	13.6	1.1	-0.9	6.6
화학제품	0.3	3.1	11.1	-0.9	0.7	6.1
1차금속	-8.0	-4.3	15.3	-0.9	-3.9	5.0
금속제품	-9.5	-9.9	9.2	-1.8	-7.0	-3.6
컴퓨터, 전자 및 광학	9.2	5.9	19.6	6.4	3.9	12.8
기계 및 장비	6.6	-7.9	23.5	-0.9	2.2	10.0
운송장비	10.5	-15.3	11.8	1.9	-9.1	5.3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2020년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세부업종별로는 대

면서비스업이 방역조치 완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표 1 - 2.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2008	2009	2010	2019	2020 <sup>p</sup>	2021 <sup>p</sup>
서비스업	3.9	2.0	5.1	3.4	-1.0	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	-0.5	6.9	3.5	-5.7	3.3
운수업	4.8	-4.5	13.1	1.7	-15.1	5.2
금융 및 보험업	6.1	5.8	3.0	3.4	9.1	6.1
사업서비스	5.8	1.6	7.7	2.6	-0.4	2.8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3.7	7.8	6.7	9.8	1.3	4.8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토목건설과 전문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은 2.7% 증가로 전환하였고,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4.9% 증가하였다.

## (2) 고용 및 임금

### 취업자수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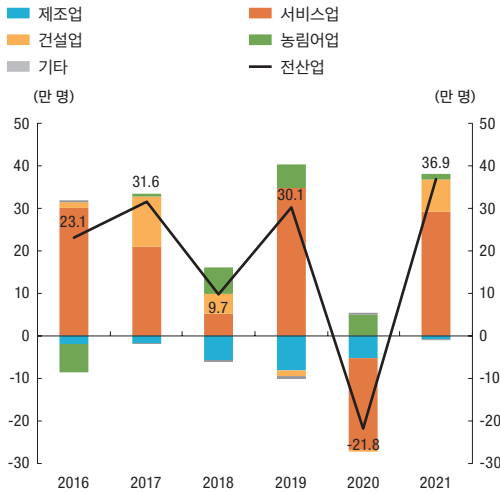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36.9만 명)하는 등 빠르게 개선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운수창고업,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였다. 제조업 고용은 국내경기 및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소폭 감소하였 으며, 건설업 취업자수는 증가로 전환하였다.

그림 1 - 11.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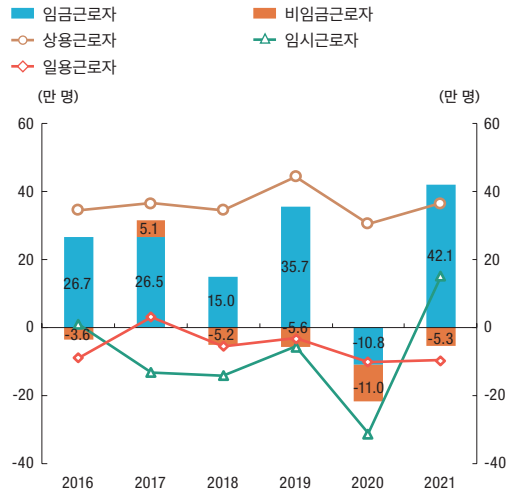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용직 및 비임금 근로자 고용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연령별로는 15~29세 및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30~59세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상당폭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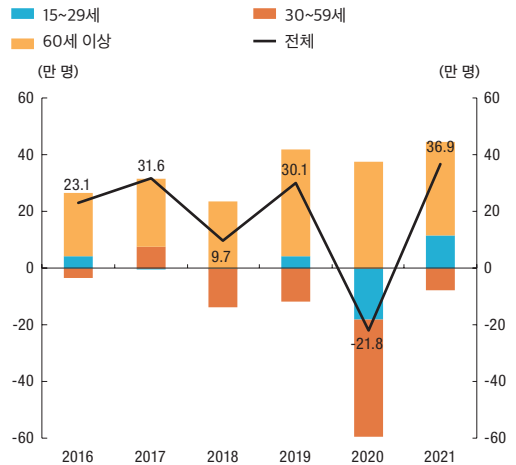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0.4% 포인트 상승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3%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8%로 전년보다 1.2%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1 - 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1 - 13.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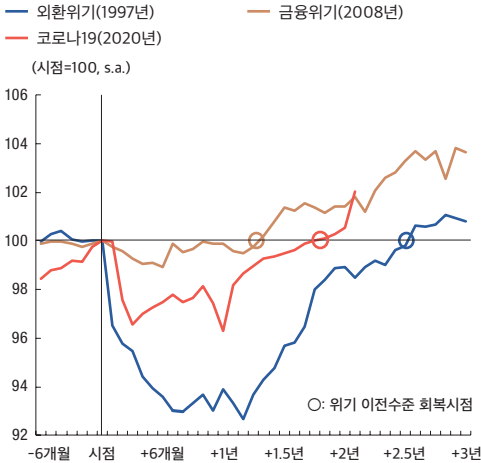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취업자수(계절조정)는 2020년 중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뒤 2021년 2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1년 10월에는 2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수준을 회복하였다. 과거 경제위기 시와 비교하면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금융위기

(16개월)와 외환위기(31개월)의 중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1 - 14. 위기별 고용경로<sup>1)</sup>



주: 1) 위기 발생시점은 외환위기 1997년 12월, 금융위기 2008년 11월, 코로나19 2020년 1월  
 자료: 통계청

표 1 - 3. 고용 관련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활동인구 (만 명, %)	2,742	2,775	2,790	2,819	2,801	2,83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0	1.2	0.5	1.0	-0.6	1.1
경제활동 참가율	62.9	63.2	63.1	63.3	62.5	62.8
취업자수	2,641	2,672	2,682	2,712	2,690	2,727
취업자수증감	23.1	31.6	9.7	30.1	-21.8	36.9
실업률 (15~29세)	3.7	3.7	3.8	3.8	4.0	3.7
(15~64세)	9.8	9.8	9.5	8.9	9.0	7.8
고용률 (15~64세)	60.6	60.8	60.7	60.9	60.1	60.5
(15~64세)	66.1	66.6	66.6	66.8	65.9	66.5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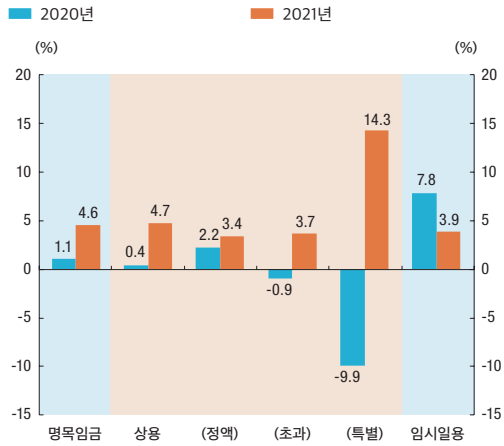
임금 상승폭 반등

명목임금은 4.6% 상승하여 2020년(1.1%)의 부진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2018~19년 평균 4.4%)으로 반등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경기회복,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용직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직했던 저임금 근로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시간당 명목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1 - 15.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표 1 - 4. 임금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명목임금 <sup>1)</sup>	3.8	3.3	5.3	3.4	1.1	4.6
(실질임금) <sup>2)</sup>	2.8	1.3	3.7	3.0	0.5	2.0
시간당명목임금 <sup>3)</sup>	5.1	5.2	6.8	3.9	2.6	4.5
노동생산성 <sup>4)</sup>	3.1	3.9	4.5	1.9	1.7	2.7
단위노동비용 <sup>5)</sup>	2.0	1.3	2.2	2.0	0.9	1.8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 (3) 물가

#### 소비자물가 오름폭 크게 확대

2021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전년대비)로 전년(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물가안정목표(2.0%)를 상회하였다. 특히 4/4분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3.5% 상승하며 2011년 4/4분기(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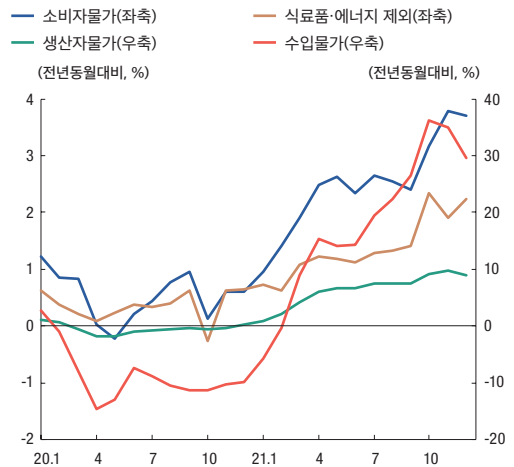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확대는 유가, 농축산물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주도한 가운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높아진 데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농산물가격이 한파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축산물가격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정내 수요증가, 수입육류 공급차질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대비 8.7% 상승하였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 전환하였으며(-7.3% → 15.2%), 석유류제외 공업제품가격은 전년에 이어 0%대의 낮은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들어 가공식품,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연초 전기료 인하로 상반기 중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전년 7월의 도시가스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 전환한 후 4/4분기 들어 전기료 인상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서비스물가는 2.0% 상승하며 전년(0.3%)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집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서비스물가가 상승 전환하였으며(-1.9% → 1.0%), 개인서비스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외식을 중

심으로 오름세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1.2%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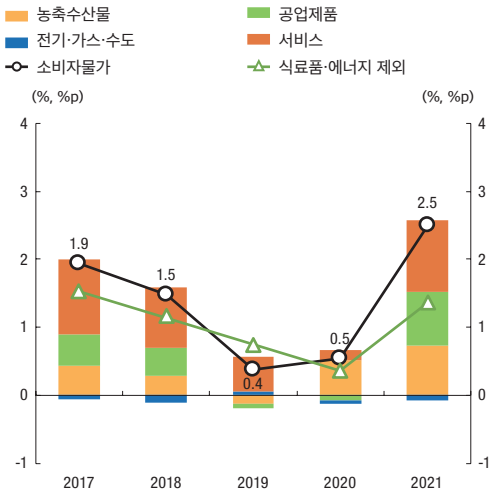
2021년 중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년(0.4%)보다 상당폭 높은 1.4%를 나타내었다. 특히 물가상승압력이 근원품목으로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구조적 물가 오름세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4/4분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를 상회하였다.

그림 1 - 16. 주요 물가지표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1 - 17.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주택매매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11월 이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중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9.9%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하반기 상승률이 상반기 수준을 상회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하반기 들어 상승률이 소폭 둔화되었다.

주택 전세 및 월세 가격도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연중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1 - 5. 주택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

	05~09 10~14 15~19			2021		
	평균	평균	평균	2020 연간	상반	하반
주택매매가격	5.7	1.6	1.3	5.4	9.9	4.7
<수도권>	9.3	-1.0	2.4	6.5	12.8	5.9
<비수도권>	1.8	4.6	0.3	4.3	7.4	3.6
주택전세가격	4.0	5.6	0.7	4.6	6.5	3.0
주택월세가격	..	..	-0.6 <sup>1)</sup>	1.1	2.6	1.0

주: 1) 2016~19년 평균(시계열이 2015년 6월부터 시작)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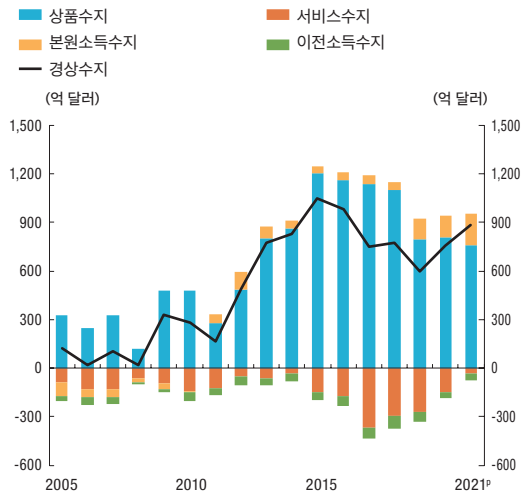
### (4) 경상수지

#### 경상수지 흑자 확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되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확대된 88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sup>15)</sup>. 상품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상운임 급등으로 운송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폭이 줄었으며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를 통한 배당수입이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15) 경상수지: 2019년 597억 달러 → 2020년 759억 달러 → 2021년 883억 달러

그림 1 - 18.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 상품 수출 호조

수출(통관 기준)은 역대 최고 수준<sup>16)</sup>인 6,44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었는데 IT제품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디지털경제 확산에 힘입어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IT제품 수출의 경우 주요국의 수입수요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화공품, 석유제품 및 철강이 크게 늘어나고 자동차<sup>17)</sup>도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표 1 - 6. 주요 품목별 수출

	2020		2021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 제품	3.8	<35.8>	24.0	<35.3>
반도체	5.4	<19.9>	28.1	<20.2>
무선통신기기	-6.4	<2.6>	22.8	<2.5>
디스플레이패널	-12.2	<3.5>	18.9	<3.3>
컴퓨터	46.0	<2.5>	27.0	<2.6>
비IT 제품	-10.0	<64.2>	26.7	<64.7>
자동차	-14.1	<10.9>	23.8	<10.8>
석유제품	-40.2	<4.8>	57.0	<6.0>
화공품	-1.2	<13.0>	38.1	<14.3>
기계류	-8.1	<10.1>	10.5	<8.9>
선박	-2.0	<3.7>	16.9	<3.5>
총 수출 <sup>1)</sup>	-5.5	[5,125]	25.7	[6,444]

주: 1) [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상품 수입 큰 폭 증가

수입(통관 기준)은 6,1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1.5% 확대되었다. 원자재 수입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유, 가스 및 철강재를 중심으로 급증하였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반도체·반도체장비 및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6) 종전 수출액 최고치는 2018년의 6,049억 달러였다.

17) 분기별로는 2021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완성차 생산 및 수출이 부진하였다 (일평균 완성차 수출 금액: 2021년 1/4분기 1.84억 달러→2/4분기 1.73억 달러→3/4분기 1.59억 달러→4/4분기 1.80억 달러).

표 1 - 7. 주요 품목별 수입

	2020		2021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18.8	<44.1>	46.7	<49.2>
자본재	7.4	<37.9>	20.2	<34.6>
전기·전자기기	4.6	<22.5>	21.5	<20.7>
기계류·정밀기기	14.2	<12.4>	20.9	<11.4>
(반도체제조장비)	62.8	<3.7>	50.1	<4.3>
소비재	-0.4	<18.0>	18.3	<16.2>
총수입 <sup>1)</sup>	-7.1	[4,676]	31.5	[6,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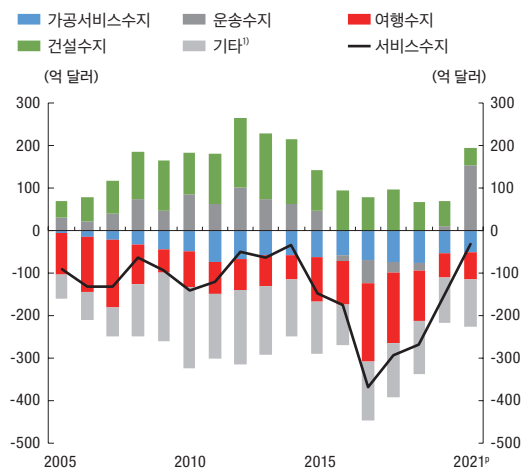
주: 1) [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2001년<sup>18)</sup> 이후 가장 작은 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sup>19)</sup>. 이는 운송수지가 글로벌 공급병목에 따른 화물운임 상승과 국적선사의 선박 확충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고 여행수지 적자규모도 내국인의 해외관광 위축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폭 하회한 데 주로 기인한다. 가공서비스수지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그림 1 - 19. 서비스수지



주: 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 여타 서비스수지 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 (5) 지역경제동향<sup>20)</sup>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른 권역에서도 석유화학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도소매업 및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수요동향<sup>21)</sup>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촉진정책 등에 힘입어 전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제조업 업황 호조 등으로 2020년 하반기의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모든 권역에서 여전히 기준치(100)

18) 2001년 서비스수지는 -2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9) 서비스수지: 2019년 -268억 달러 → 2020년 -147억 달러 → 2021년 -31억 달러

20) 2021년 중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지역경제보고서(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3월호, 2021년 6월호, 2021년 9월호, 2021년 12월호.

21)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착공면적이 대부분의 권역에서 주거용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서는 상업용 건물 착공이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하였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상업용 및 공업용 건물 착공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은 2020년의 기저효과 및 주요국 경기회복, 건조한 IT수요 등에 힘입어 전 권역에서 두 자릿수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동남권에서는 석유화학·정제 및 자동차, 호남권에서는 석유화학·정제 및 철강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수가 모든 권역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실업률도 대부분 권역에서 2020년 대비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상승하고 공업제품이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서비스물가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전 권역에서 2020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가계대출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제주권에서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 재건축 이주 등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표 1 - 8. 2021년 권역별<sup>1)</sup> 주요 지표<sup>P)</sup>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강원	제주
<b>생산</b>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13.2	1.3	3.5	9.0	5.8	-0.6	0.8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5.1	3.2	3.0	2.7	3.4	4.0	2.6
<b>수요</b>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3.1	2.0	1.6	1.4	2.0	1.1	3.8
설비투자 BSI <sup>3)</sup>	99	93	97	98	93	95	97
건축착공면적 <sup>2)</sup>	6.6	27.6	20.1	-4.6	3.4	22.6	24.8
수출 <sup>4)</sup>	22.4	26.2	25.8	43.9	20.4	34.9	45.8
<b>고용</b>							
취업자수 증가 <sup>5)</sup>	24.8	1.5	3.4	2.8	2.5	1.5	0.5
실업률	4.1	3.7	2.6	2.6	3.5	3.6	3.1
<b>물가</b>							
CPI <sup>6)</sup>	2.4	2.5	2.7	2.6	2.7	2.8	2.6
주택매매가격 <sup>7)</sup>	12.8	8.5	8.5	5.3	6.3	6.4	6.6
주택전세가격 <sup>7)</sup>	7.7	6.2	7.3	3.3	4.6	4.3	5.3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기준치=100

4) 통관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5) 전년대비 증가(만 명)

6) 전년대비 상승률

7)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부동산원